

부산지역의 외식실태조사 2.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음식점과 음식의 선호도

김 두 진 · 임 효 진
경남전문대학 식품영양과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for Dining-out in Pusan 2. The Preference of Restaurant and Food According to Age Groups and Sex Distinction

Doo-Jin Kim and Hyo-Jin Lim

Dept. of Food and Nutrition, Kyongnam Junior College, Pusan 617-701,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actual condition of dining-out and the preferences of restaurant and food according to age groups and sex distinction in Pusan area. The survey was conducted on 564 peoples who live or work, including students aged more than 4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in Pusan area.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s are as follows ;

The reasons of preffering restaurant were in order of "delicious taste", "comfortable atmosphere" and "economical price", and of no preffering restaurant were in order of "untasty", "unsanitary" and "unkind employees". Female and student group were more in the items of unexperinced food than male and older group. The menu of preffering were in order of "sliced raw fish", "pizza", "bulgogi", and of no preffering were in order of "dog soup", "gopchang jengol", "ox tail soup" male and older group showed a relatively highest preference for "traditional food", however, female and younger(student group and young group) showed a relatively highest preference for "fast foods". The reasons of preffering food were in order of "delicious taste", "something like" and "abundance of nutrition", and of no preffering food were in order of "untasty", "hatred food" and "doesn't suit costitution". Male and older group showed a relatively highest preference for "abundance of nutrition", however, female and younger showed a relatively highest preference for "foreign food".

But, the results of the preferences of restaurant and food were different according to sex distinction and age groups.

Key words : dining-out, preference, restaurant, food, Pusan area.

서 론

최근 장기간에 걸친 불황과 이에 따른 조기퇴직자와 명예퇴직자 등의 증가로 전업과 창업붐이 일고 있으며,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종이 외식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반인들도 외식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전업 또는 창업희망자는

물론 예비창업자들까지도 외식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경험이 없더라도 소자본으로도 쉽게 개업할 수 있으며, 또한 먹는 장사는 불황을 타지 않는다는 속설과 아울러 여러 매스메디아들이 다경쟁적으로 외식업에 진출하여 성공한 퇴직자들의 성공사례를 게재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지속된 경기침체와 최근의 IMF 환파로

의한 부도업체의 증가와 실업자의 양산은 기업들의 접대비 감소와 가구당 외식비의 감소를 가져와서 외식업소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전문지식이 부족한 퇴직자와 실직자들이 철저한 시장 분석없이 마구잡이로 창업함으로써 과열경쟁과 주먹구구식 경영으로 폐업하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10월까지 음식업중앙회 서울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4만여명의 교육생 중 신규 창업은 38%에 불과하고 나머지 62%는 명의변경을 하기 위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명의 변경율이 높다는 것은 신규 창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업율이 높다는 것을 말해 준다¹⁾.

이와 같은 불황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미 호황기에 높은 수준으로 변해 버린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기침체와 IMF시대에 걸맞는 업소가 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하는 고객의 욕구변화에 앞서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경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2,3)}.

외식업은 식사를 조리해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식품창업(식품제조업)에 속하지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소매업의 특성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적 서비스의 제공, 분위기의 연출, 식사와 관련된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하므로 서비스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특이한 업종이라 할 수 있다⁴⁾.

음식점에서 요리가 “맛있다”라는 것은 음식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감싸는 모든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²⁾ 음식과 서비스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이므로⁵⁾ 성공하는 업소가 되기 위해서는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와 메뉴를 개발해야 한다. 식사의 “질”이 좋다는 것은 “맛있다”는 것이며 맛있다는 것은 “기분이 좋다”라고 할 수 있으며, 기분이 좋기 위해서는 인적 서비스와 물적 서비스가 동반되어야 한다²⁾. 따라서 서비스란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말하며 그 중 1) 편안한 분위기, 2) 친절한 서비스, 3) 다양한 메뉴, 4) 기호에 맞는 음식, 5) 적당한 가격 등 5가지가 충족될 때 소비자는 만족감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⁶⁾. 또한, 식품의 선호도는 연령과 성별 등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으므로⁷⁾ 고객층의 분석과 그 고객들이 선호하는 메뉴가 무엇이며 식당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⁸⁾.

그러나, 이제까지 외식관련 연구는 외식형태나 식당선택기준과 같은 외식성향조사^{3,9~12)}와 패스트점에 대한 이용실태조사^{13~15)} 등 몇몇이 있으나, 대부분이

청소년⁷⁾, 대학생^{10,12,15)}, 성인남녀^{3,13)} 등 특정 성별이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남녀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9,11)}는 그렇게 많지 않다. 식품의 선호도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으므로⁷⁾ 특정 성이나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전반적인 외식실태를 파악하는데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별력이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외식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인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음식점에 대한 선택 이유와 메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함으로써 외식업 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본 조사는 1996년 10월에서 12월에 걸쳐 본교 식품영양과 재학생의 협조를 얻어 부산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진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친지를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약 8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집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564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전보¹¹⁾에서와 같이 식행동은 성별과 연령, 직업 그리고 거주 및 생활권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생각되어 일반사항에서 성별, 나이, 직업 및 현주소 등을 조사하였으며, 연령은 의식수준과 시대적 동질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판단능력을 고려하여 4~6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중학생, 고등학생(이상을 학생층), 대학생, 20대(생활환경과 소득수준의 차이로 대학생과 구분 : 이상은 청년층), 30대, 40대 그리고 50대 이상(이상은 장년층)으로 구분하였다.

부산시민의 외식성향 중 음식점을 선호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보¹¹⁾에 이어 음식점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유를 조사하였으며, 외식 메뉴에 대한 기호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시민이 자주 먹는 메뉴 중 먹어보지 않은 음식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음식의 종류 및 그 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에 대한 선택은 문항에 따라 2~3개씩 중복선택하게 하였는데 이는 음식점이나 음식을 선택할 때 어느 한가지 이유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가지 이상일 것으로 생각되어 응답시에 응답자의 부담이 가급적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본 설문조사에서의 외식이라 함은 집단급식소(기숙사, 학교, 병원, 후생기관 등)와 각 직장의 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에서의 식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조사의 분석은 성별과 연령, 또는 연령층별로 구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distribution)을 위주로 한 서술적 통계방법(descriptive statistics)을 사용하였고, 빈도수, 백분율 등의 통계처리는 dBST-AT¹⁶⁾에 의해 처리하였으며, 각 문항에서 결측치는 자료 처리시 제외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전체 조사 대상자의 성별, 연령, 직업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 564명 중 남자는 46.6%인 263명, 여자는 53.4%인 301명이었으며, 초등학교생이 12.9%인 73명, 중학생이 11.5%인 65명, 고교생이 12.9%인 73명(이상 학생층으로 37.4%인 211명), 대학생이 15.1%인 85명, 20대가 12.1%인 68명(이상 청년층으로 27.1%인 153명), 30대가 10.8%인 61명, 40대가 13.1%인 74명, 50대 이상이 11.5%인 65명(이상 장년층으로 35.5%인 200명)으로 나타났다. 연령

별 분류는 설문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학생 이하는 생활 및 외식환경에 따라 초등생·중등생·고등생 및 대학생으로 구분하였으며, 성인은 연령에 따라 10살 단위로 구분하였다. 한편, 경제능력과 사회적인 활동범위에 따라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활동범위도 제한적인 초등생에서 고교생까지를 묶어서 “학생층”으로 구분하였고, 경제능력은 없거나 다소 부족하지만 외식행동은 활발한 대학생과 20대를 묶어서 “청년층”으로 구분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소득이 있고 대부분이 가정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30대 이상은 외식행동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어 “장년층”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직업별로는 학생이 52.1%인 294명이고 공무원, 회사원, 주부 등 비학생이 47.9%인 274명이었다.

2. 설문에 이용한 음식의 종류

그림 1은 설문지에 게재한 보기 중의 음식의 종류로서 양 등¹⁷⁾이 조사한 가족 및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음식 종류를 참고하고, 본교 식품영양과 학생들의 협조를 얻어 남녀노소 및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외식시에 자주 먹는 음식 중 49개의 메뉴를 선정하여 1993년도에 선호도 조사를 하였으나 메뉴의 종류가 다소 미흡하여 이번에 20개 음식을 추가하여 총 69개 메뉴를 대상으로 외식 경험 유무와 좋아하거나 좋아

표 1. 일반사항

구분	남		여		계		비고	
	명	%	명	%	명	%		
성별	263	46.6	301	53.4	564	100		
연령	초등생	36	6.4	37	6.6	73	12.9	학생층
	중학생	27	4.8	38	6.7	65	11.5	
	고교생	33	5.9	40	7.1	73	12.9	
연령	대학생	41	7.3	44	7.8	85	15.1	청년층
	20대	33	5.9	35	6.2	68	12.1	
	30대	30	5.3	31	5.5	61	10.8	장년층
	40대	29	5.1	45	8.0	74	13.1	
	50대 이상	34	6.0	31	5.5	65	11.5	
직업	학생	137	24.3	157	27.8	294	52.1	
	공무원	11	2.0	7	1.2	18	3.2	
	회사원	59	10.5	34	6.0	93	16.5	
	상업	17	3.0	3	0.5	20	3.5	
	사업	7	1.2	9	1.6	16	2.8	
	주부	0	0.0	77	13.7	77	13.7	
	기타	30	5.3	13	2.3	43	7.6	
	무응답	2	0.4	1	0.2	3	0.5	

		보 기			
1 갈비탕	2 돈까스	3 불고기	4 양식부페	5 치킨	
6 곰탕	7 돼지갈비	8 비빔밥	9 오리불고기	10 카레라이스	
11 곱창전골	12 돼지국밥	13 비프스테이크	14 오므라이스	15 칼국수	
16 국밥	17 된장찌개	18 비후까스	19 우동	20 탕수육	
21 국수	22 등심구이	23 삼겹살	24 육개장	25 통만두	
26 군만두	27 라면	28 삼계탕	29 잡채밥	30 피자	
31 김밥	32 밀면	33 생선매운탕	34 잡탕밥	35 한식부페	
36 김치찌개	37 백반정식	38 생선회	39 장어구이	40 한정식	
41 꼬리곰탕	42 보신탕	43 설렁탕	44 족발	45 함박스테이크	
46 낙지볶음	47 보쌈	48 소갈비	49 짜장면	50 해물탕	
51 냉면	52 복매운탕	53 수육백반	54 찜빵	55 해장국	
56 닭갈비	57 복지리	58 순두부백반	59 쫄면	60 햄버거	
61 닭백숙	62 볶음밥	63 스파게티	64 초밥	65 회덮밥	
66 대구탕	67 부대찌개	68 이구찜	69 추어탕		

그림 1. 설문에 사용된 메뉴표

하지 않는 음식의 종류를 조사하는데 이용하였다.

3. 음식점에 대한 선호도

1) 음식점을 좋아하는 이유

표 2는 음식점을 좋아하는 이유 2가지를 중복선택하는 경우 “맛이 있어서” 좋아한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대부분인 81.7%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분위기가 좋아서” 23.3%, “음식 가격이 싸서” 20.4% 순으로 음식 맛이 식당 선택에서 가장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 “식당의 분위기”와 “음식 가격”이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남자는 “종업원이 예뻐서”, “메뉴가 다양해서”, “교통이 편리해서” 등의 항목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여자는 “위생적이어서”, “분위기가 좋아서”, “실내가 청결해서” 등의 항목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학생층과 청년층은 “분위기가 좋으면서”, “음식가격이 싸” 식당을 좋아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 학생층은 “메뉴가 다양해서”, 그리고 장년층은 “위생적이어서” 좋아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표 2. 음식점을 좋아하는 이유

(단위 : %)

내 용	성별		연령층별			전체	순위
	남자	여자	학생층	청년층	장년층		
응답자수(명)	263	300	211	153	199	563	
맛이 있어서	79.1	84.0	79.1	83.7	82.9	81.7	1
종업원이 친절해서	12.9	11.3	12.3	15.7	9.0	12.1	7
종업원이 예뻐서	7.2	2.0	7.6	3.9	1.5	4.4	
위생적이어서	15.2	20.3	13.3	12.4	27.1	17.9	4
음식가격이 싸서	21.7	19.3	26.1	21.6	13.6	20.4	3
분위기가 좋아서	20.1	26.0	23.7	28.1	19.1	23.3	2
실내장식이 고급	1.5	3.0	3.8	1.3	1.5	2.3	
메뉴가 다양해서	18.6	12.3	18.5	10.5	15.6	15.3	5
실내가 청결해서	8.0	16.7	10.0	14.4	14.1	12.6	6
음식가격이 비싸서	0.8	0.0	0.5	0.7	0.0	0.4	
교통이 편리해서	8.4	3.0	3.3	4.6	8.5	5.5	
주차하기 쉬워서	4.6	1.3	0.5	2.0	6.0	2.8	

비해 높게 나타났다.

2) 음식점을 싫어하는 이유

표 3은 음식점을 싫어하는 이유를 나타낸 것으로서 “맛이 없어서”가 전체의 59.1%로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위생적이어서” 43.0%, “종업원이 불친절해서” 3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자는 “음식 가격이 비싸서”와 “교통이 불편해서” 항목에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여자는 “종업원의 불친절”과 “실내가 불결해서” 항목에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생층은 “종업원이 못생겨서”와 “음식 가격이 비싸서”, 청년층은 “종업원이 불친절해서”, 장년층은 “비위생적이어서”와 “교통과 주차 불편”의 항목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음식점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음식 맛”이 우선이라는 보고^{7,11)}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좋아하는 이유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81.7%였으나 싫어하는 이유에서는 59.1%로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음식점을 선택하는데는 “맛”이 절대적이지만, 싫어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이유들도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좋아하는 이유에서 2, 3순위인 “분위기가 좋아서”와 “음식가격이 싸서”가 각각 23.3%와 20.4%인데 비해, 싫어하는 이유에서의 “비위생적이어서”와 “종업원이 불친절해서”는 각각 43.0%와 30.0%로 높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종업원의 친절”은 식당을 좋아하는 이유에서는 12.1%로 큰 비중이 아니었지만, 싫어하는 이유에서는 30.0%로 3순위에 해당되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종업원의 친절은 고객이 식당 선택기준에서

당연한 서비스로 생각되어지지만, 불친절은 고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악재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자와 장년층에서는 “위생과 청결”이 식당 선택의 주요한 이유였으며, 여성은 “맛”이나 “가격”보다 음식점의 “청결함”이 음식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¹⁸⁾라는 내용과 같다고 생각된다. 젊은 사람들은 “분위기”가, 경제능력이 없는 학생들은 “음식가격”이 식당을 선택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4. 먹어보지 않은 음식의 종류

표 4는 Fig. 1에 있는 음식 중 응답자의 50명 이상이 먹어보지 않은 음식의 종류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복지리” 63.1%, “보신탕” 61.7%, “복매운탕” 42.3%, “곰창전골” 39.4% 순으로 혐오식품이거나 보신식품에 해당하는 것들이 무경험 메뉴의 상위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0% 이상이 먹어보지 않은 음식의 종류는 남자가 6종, 여자가 9종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외식 메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메뉴에서 여자쪽이 무경험 비율이 더 높았으나 “비프스테이크”, “함박스테이크” 및 “스파게티” 등 외래음식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학생층이 14종, 청년층이 6종, 장년층이 3종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경험 메뉴의 종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외식 메뉴에 대한 무경험은 경제적, 사회적, 또는 체질적 요인에 의해 아직까지 먹어보지 못했거나 먹어보지도 않고 싫어하는 음식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

표 3. 음식점을 싫어하는 이유

(단위 : %)

내 용	성별		연령층별			전체	순위
	남자	여자	학생층	청년층	장년층		
응답자수(명)	262	301	210	153	200	563	
맛이 없어서	58.8	59.5	59.5	62.1	56.5	59.1	1
종업원이 불친절해서	23.7	35.5	28.1	34.6	28.5	30.0	3
종업원이 못생겨서	4.6	0.7	5.2	0.7	1.0	2.5	
비위생적이어서	42.0	43.9	37.6	39.9	51.0	43.0	2
음식가격이 비싸서	24.8	20.6	26.2	22.2	19.0	22.6	4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6.9	6.3	6.7	8.5	5.0	6.6	
실내장식이 저질이어서	1.9	2.3	3.3	2.0	1.0	2.1	
메뉴가 다양하지 않아	6.5	3.0	6.2	5.2	2.5	4.6	
실내가 불결해서	17.6	20.9	20.0	19.0	19.0	19.4	5
음식가격이 싸서	0.4	0.7	0.0	0.7	1.0	0.5	
교통이 불편해서	8.8	4.3	4.3	3.3	10.0	6.4	
주차하기 어려워서	3.4	1.7	1.0	2.0	5.0	2.5	

표 4. 먹어보지 않은 음식의 종류

(단위 : %)

내 용	성별		연령층별			전체	순위
	남자	여자	학생층	청년층	장년층		
응답자수(명)	158	197	151	101	103	355	
부대찌개	26.6	34.5	47.0	14.9	23.3	31.0	7
추어탕	11.4	20.8	27.2	15.8	1.9	16.6	
양식부페	14.6	17.3	16.6	13.9	17.5	16.1	
곱창전골	32.9	44.7	55.0	40.6	15.5	39.4	4
돼지국밥	13.3	19.8	29.1	11.9	3.9	16.9	
비프스테이크	30.4	27.9	34.4	20.8	29.1	29.0	8
백반정식	15.8	16.8	32.5	7.9	1.0	16.3	
잡탕밥	32.3	39.6	49.0	36.6	17.5	36.3	5
꼬리곰탕	27.2	42.6	51.0	39.6	9.7	35.8	6
장어구이	19.0	20.3	30.5	20.8	2.9	19.7	
보신탕	46.2	74.1	72.8	65.3	41.7	61.7	2
함박스테이크	19.0	10.7	17.2	7.9	16.5	14.4	
복매운탕	36.1	47.2	59.6	42.6	16.5	42.3	3
수육백반	19.6	30.5	40.4	24.8	4.9	25.6	10
해장국	12.7	17.8	31.1	5.0	2.9	15.5	
복지리	58.9	66.5	74.2	73.3	36.9	63.1	1
대구탕	9.5	21.3	31.8	8.9	0.0	16.1	
스파게티	20.3	17.8	15.2	7.9	35.0	18.3	
회덮밥	20.9	31.5	47.0	20.8	2.9	26.8	9
응답자의 30% 이상인 종목 수	6	9	14	6	3	6	

중복선택

각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사회적으로 활동이 적은 학생층이 응답자의 30% 이상 무경험 메뉴가 14종이라는 것과, 사회적인 활동이 적고 체질상 비위가 약한 여자쪽이 남자쪽보다 무경험 음식이 많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무경험 메뉴 중 상위 순위에 해당하는 음식들이 대부분 보신탕이거나 혐오식품으로 비위가 약한 학생층과 여자들이 거부감을 일으키기 쉬운 재료로 만든 식품들이 있는데, 이는 먹어보지 않고도 싫어하게 되는 경우로서 시각적인 감각에서 유래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보고 나서 기분이 나쁘거나 징그럽거나 또는 자신이 싫어하는 그 무언과 연결하여 그 식품을 싫어하는 되는 생각이 마음 속에 새겨져서 그 심리적인 원인으로 그 식품을 장기간 싫어하고 피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¹⁹⁾. 또한 남자와 장년층이 외래음식에 대한 무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패스트 푸드와 양식을 좋아하는 여자와 젊은 세대에 비해 전통음식에 대한 보수성이 높고 새로운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적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10,13,20)}

5. 음식의 선호도

1) 좋아하는 메뉴

Table 5는 보기 중의 음식 중 좋아하는 음식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여 전체 응답자의 30명 이상이 선택한 메뉴만을 나타낸 것으로서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전체의 18.0%가 좋아하는 “생선회”였고, 다음으로 “피자” 16.8%, “불고기” 14.4%, “된장찌개”, “햄버거” 순이었다. 그러나, 성별간에서 남자는 “불고기” 19.3%, “생선회” 18.1%, “피자” 14.3% 순인데 비해 여자는 “피자” 18.9%, “생선회” 17.9%, “아구찜” 13.2%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좋아한다고 볼 수 있는 메뉴는 “불고기” 정도인데 비해 여자는 “피자”, “김밥”, “아구찜”, “뉘지볶음” 등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에서는 학생층이 “피자”(29.8%), “햄버거”(22.6%), “돈까스”(19.7%) 등 패스트 푸드류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년층은 “피자”(18.5%), “생선회”(17.3%), “불고기”(14.6%) 등 패스트 푸드와 전통음식을 같이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장년층은 “생선회”(33.2%), “된장찌개”(16.8%), “갈비탕”(12.8%) 등 전통음식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령층별로 음식의 기호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 좋아하는 음식

(단위 : %)

내 용	성별		연령별								전체	순위
	남자	여자	초등	중등	고등	대학	20대	30대	40대	50대		
응답자수(명)	259	296	73	63	72	85	66	60	73	63	555	
갈비탕	10.8	6.4	5.5	4.8	9.7	5.9	4.5	10.0	13.7	14.3	8.5	10
돈까스	8.5	9.8	27.4	25.4	6.9	3.5	4.5	3.3	0.0	3.2	9.2	8
돼지갈비	7.0	6.4	5.5	9.5	5.6	7.1	4.5	10.0	4.1	7.9	6.7	
불고기	19.3	10.1	20.6	14.3	22.2	16.5	12.1	6.7	6.8	14.3	14.4	3
비빔밥	5.4	9.8	2.7	6.3	6.9	14.1	7.6	10.0	6.8	6.3	8.8	9
아구찜	2.7	13.2	0.0	6.4	2.8	5.9	6.1	11.7	24.7	9.5	7.8	
된장찌개	12.7	9.1	5.5	7.9	1.4	7.1	16.7	15.0	16.4	19.1	10.8	4
탕수육	5.8	7.4	11.0	14.3	12.5	3.5	7.6	3.3	1.4	0.0	6.7	
라면	5.4	6.1	11.0	14.3	8.3	7.1	3.0	1.7	0.0	0.0	5.8	
김밥	2.3	11.8	15.1	11.1	15.3	9.4	1.5	1.7	1.4	1.6	7.4	
피자	14.3	18.9	32.9	31.8	25.0	20.0	16.7	0.0	4.1	0.0	16.8	2
김치찌개	7.7	11.5	9.6	12.7	13.9	12.9	10.6	5.0	2.7	9.5	9.7	6
생선회	18.1	17.9	2.7	6.3	4.2	18.8	15.2	36.7	35.6	27.0	18.0	1
낙지볶음	5.8	12.8	1.4	11.1	9.7	12.9	15.2	6.7	12.3	6.3	9.6	7
냉면	3.5	8.1	1.4	4.8	4.2	5.9	12.1	8.3	9.6	1.6	6.0	
해물탕	5.8	8.8	1.4	0.0	1.4	11.8	16.7	18.3	2.7	7.9	7.4	
햄버거	10.0	10.8	28.8	19.1	19.4	9.4	4.5	0.0	0.0	0.0	10.4	5

중복선택

식기호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가지는 장기간 동안 바뀌지 않는 “식기호”에 해당하는 기호가 있고, 또 한가지는 때에 따라 변하는 “맛”에 해당하는 기호가 있다. 따라서, 식기호는 모두 맛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고차원의 감정과 의식 등 심리적 측면과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언제나 맛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¹⁹⁾. 본 연구에서 좋아하는 음식이란 자주 먹는 음식이 아니라 “식기호” 차원에서 좋아하는 메뉴를 말한다.

부산 시민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다른 도시와는 21) 달리 “생선회”였는데 이는 바다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이다. 관광도시라는 지역적인 특성때문에 주로 “생선회”를 위주로 한 외식문화가 독보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²²⁾ “불고기”와 “된장찌개”는 다른 연구에서와^{21,23,24)} 마찬가지로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피자”와 “햄버거”가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은 응답자 중에 젊은 세대인 “학생층”과 “청년층”의 비율이 64.5%로 높기 때문이라 생각되었다. 남자는 “불고기”를 가장 좋아하는데 비해 여자는 “피자”를 좋아하고, 연령층별로는 “학생층”과 “청년층”은 “피자”를, 그리고 “장년층”은 “생선회”를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와 나이가 어릴수록 패스트 푸드 계통의 메뉴

를 좋아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전통음식류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8,10,25)}. 젊은 층이 패스트 푸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우선 가격이 저렴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에 부담이 없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⁸⁾, 시간에 쫓기는 바쁜 도시인이나 학생들, 직장인, 여성들 중에서 패스트 푸드를 선호하는 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간편육구, 식도락육구, 단란·회복육구, 분위기육구, 저가격에 대한 공복 충족육구 등 다변화된 육구에 부응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²⁵⁾.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볼 때 성별간 또는 연령층간에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므로 특정 “성”이나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거나 조사대상의 인류학적 비율이 달라지면 선호도의 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표 6은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 2가지를 중복선택하는 경우로서 대부분의 응답자인 93.4%가 “맛이 있어서”라 하였으며 다음으로 “그냥 좋아서” 51.5%, “영양이 풍부해서” 31.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간의 차이에서는 남자가 “영양이 풍부”하거나 “정력에 좋은” 음식을 더 좋아하는데 비해 여자는 “그냥 좋은” 음식과 “외래음식”을 더 좋아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자들이 육류를 좋아하고 여자들은 외래음식인 패스트 푸드류와 “비빔밥”, “김밥”, “김치찌개” 등 일반

표 6.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

(단위 : %)

내 용	성별		연령별								전체	순위
	남자	여자	초등	중등	고등	대학	20대	30대	40대	50대		
응답자수(명)	260	299	72	64	73	84	68	61	73	64	559	
맛이 있어서	93.5	93.3	97.2	95.3	89.0	98.8	95.6	93.4	87.7	89.1	93.4	
가격이 싸서	12.3	11.4	4.2	10.9	19.2	13.1	7.3	8.2	13.7	17.2	11.8	
그냥 좋아서	42.3	59.5	62.5	67.2	57.5	56.0	57.4	44.3	31.5	34.4	51.5	
영양이 풍부해서	38.9	24.4	18.1	17.2	20.6	20.2	30.9	39.3	58.9	46.9	31.1	
정력에 좋아서	4.6	0.7	1.4	3.1	4.1	4.8	1.5	0.0	1.4	3.1	2.5	
외래음식이어서	2.3	4.3	11.1	3.1	4.1	2.4	2.9	3.3	0.0	0.0	3.4	
저 칼로리여서	2.7	3.0	1.4	0.0	2.7	1.2	1.5	6.6	4.1	6.2	2.9	

중복선택

적으로 자주 먹는 음식을 다양하게 좋아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령층별로는 패스트 푸드 계통의 음식을 좋아하는 학생층은 역시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다른 연령층에 비해 그 이유로서 “외국음식이어서” 좋아한다고 하였고, 장년층은 “영양이 풍부한” 음식과 “저칼로리”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여 보신과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남공³⁾의 조사에서도 메뉴 선택시 전체적으로 “음식의 맛”을 중요시하고 주부들은 “음식의 영양가”를 중요시한다는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2) 싫어하는 메뉴

표 7은 보기에 있는 음식 중 싫어하는 음식 3가

지를 선택하도록 하여 전체 응답자 중 30명 이상이 선택한 메뉴를 나타낸 것으로서 전체적으로는 “보신탕”(44.5%)을 가장 싫어하고 다음으로 “곱창전골”(19.7%), “꼬리곰탕”(15.3%), “피자”(13.7%) 순으로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간에는 남자는 “보신탕” 32.5%, “피자” 20.2%, “스파게티” 15.9%, “곱창전골”, “햄버거”, 순으로 싫어하였으며, 여자는 “보신탕” 54.8%, “곱창전골” 23.8%, “꼬리곰탕” 19.0%, “추어탕”, “돼지국밥” 순으로 싫어하였다. 연령층별로 보면 학생층과 청년층 모두 “보신탕” 53.9%와 51.4%, “곱창전골” 24.0%와 26.4%, “꼬리곰탕” 22.5%와 18.2% 순으로 각각 싫어하는데 비해 장년층은 “보신탕” 28.9%, “피자” 25.8%,

표 7. 싫어하는 음식의 종류

(단위 : %)

내 용	성별		연령별								전체	순위
	남자	여자	초등	중등	고등	대학	20대	30대	40대	50대		
응답자수(명)	252	290	71	62	71	81	67	58	72	60	542	
추어탕	8.7	14.5	16.9	11.3	21.1	14.8	10.4	8.6	2.8	6.7	11.8	5
곰탕	6.8	7.6	9.9	11.3	15.5	6.2	6.0	3.5	1.4	3.3	7.2	
곱창전골	15.1	23.8	18.3	25.8	28.2	23.5	29.9	10.3	11.1	8.3	19.7	2
돼지국밥	3.6	13.1	8.4	4.8	9.9	8.6	7.5	10.3	11.1	8.3	8.7	
카레라이스	13.1	4.5	0.0	1.6	2.8	6.2	6.0	12.1	16.7	23.3	8.5	
라면	7.9	4.8	1.4	0.0	4.2	4.9	1.5	13.8	11.1	13.3	6.3	
피자	20.2	7.9	2.8	1.6	1.4	16.1	11.9	8.6	23.6	45.0	13.7	4
꼬리곰탕	11.1	19.0	19.7	33.9	15.5	19.8	16.4	12.1	2.8	1.7	15.3	3
생선회	5.6	6.5	16.9	12.9	4.2	3.7	4.5	3.5	1.4	1.7	6.1	
장어구이	7.9	9.0	5.6	19.4	9.9	13.6	6.0	10.3	2.8	0.0	8.5	
보신탕	32.5	54.8	45.1	54.8	62.0	54.3	47.8	36.2	29.2	21.7	44.5	1
족발	4.0	7.9	1.4	12.9	8.4	7.4	10.4	3.5	2.8	1.7	6.1	
복지리	5.6	5.5	5.6	8.1	9.9	4.9	3.0	6.9	5.6	0.0	5.5	
쫄면	7.1	4.1	0.0	1.6	2.8	4.9	3.0	8.6	8.3	15.0	5.5	
햄버거	14.3	7.6	1.4	0.0	1.4	1.2	14.9	17.2	23.6	30.0	10.7	7
스파게티	15.9	6.5	7.0	1.6	8.4	8.6	7.5	19.0	16.7	20.0	10.9	6

중복선택

“햄버거” 23.7% 순으로 싫어하였다.

싫어하는 이유를 표 8에서 볼 수 있는데 역시 2가지를 중복선택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맛이 없어서”가 55.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혐오식품이어서” 33.1%, “체질상 거부하여서” 30.2% 순이었다. 남자는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이유인 “맛이 없어서” 다음으로 “체질상 거부하여서”(35.9%)와 “외래식품이어서”(29.3%) 등이었고, 여자는 “혐오식품이어서”(42.9%)와 “그냥 싫어서”(36.0%) 등이었다. 연령층별로는 학생층이 “혐오식품이어서”와 “그냥 싫어서” 등이고 청년층은 “혐오식품이어서”와 “체질상 거부하여서” 등이었으며 장년층은 “외래음식이어서”와 “체질상 거부하여서” 등이었다.

음식을 싫어하게 되는 기구(mechanism)는 좋아하는 것에 비해 확실히 단순하여 먹고 난 후의 컨디션이 나빴다는 경험만으로도 싫어하게 되며, 표 9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먹어보지도 않고도 좋지 않은 선입견만으로도 싫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¹⁹⁾. 싫어하는 음식의 대부분이 혐오식품이거나 보신식품으로 음식에 사용된 주재료에 대한 생각이 징그럽다거나 혐오스러운 것이 많았으며, 남자와 장년층에서는 패

스트 푸드가 외래음식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였다. “보신탕”의 경우 남녀노소 모두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지만 남자와 장년층에서는 그 비율이 많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피자”는 좋아하는 음식에서도 상위 순위였는데 싫어하는 음식에서도 상위 순위에 있는 것은 식기호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싫어하는 이유에서도 “맛”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맛”이란 전술한 바와 같이 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적, 심리적 요인도 작용하므로¹⁹⁾ “혐오한다”거나 “체질상 거부한다”는 것도 다 “맛”에 영향을 주어 싫어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패스트 푸드를 싫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남자와 장년층에서 음식을 싫어하는 이유로서 “외래음식이어서”와 “체질상 거부하여서”가 높은 비율인 것과, 패스트 푸드류는 좋아하지만 보신식품류는 싫어하는 여자와 젊은이(학생층과 청년층)들이 “혐오식품이어서”와 “체질상 거부하여서”가 음식을 싫어하는 주요 요인인 것은, 성별과 연령층이 음식의 기호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표 8. 음식을 싫어하는 이유

(단위 : %)

내 용	성별		연령별								전체	순위
	남자	여자	초등	중등	고등	대학	20대	30대	40대	50대		
응답자수(명)	256	294	73	62	72	81	67	60	74	61	550	
맛이 없어서	66.0	46.3	78.1	61.3	54.2	49.4	46.3	56.7	47.3	50.8	55.5	1
가격이 비싸서	3.5	1.0	4.1	0.0	5.6	1.2	0.0	1.7	0.0	4.9	2.2	
살이 찢까봐서	3.5	8.2	5.5	4.8	5.6	3.7	1.5	10.0	13.5	3.3	6.0	
비린내가 나서	15.6	19.7	20.6	30.6	18.1	24.7	23.9	8.3	2.7	13.1	17.8	6
외래음식이라서	29.3	15.7	8.2	0.0	2.8	14.8	19.4	33.3	41.9	60.7	22.0	5
혐오식품이어서	21.9	42.9	32.9	45.2	45.8	40.7	37.3	25.0	23.0	11.5	33.1	2
체질상 거부하여서	35.9	25.2	9.6	19.4	26.4	35.8	32.8	38.3	41.9	37.7	30.2	3
그냥 싫어서	21.1	36.0	39.7	35.5	37.5	27.2	31.3	23.3	21.6	14.8	29.1	4

중복선택

표 9. 무경험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과의 관계

(단위 : 명)

	먹어보지 않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			비율(%) A/B
	남자	여자	계(A)	남자	여자	계(B)	
복매운탕	57	93	150	7	7	14	9.3
곱창전골	52	88	140	13	26	39	27.9
꼬리곰탕	43	83	126	9	24	33	26.2
보신탕	73	146	219	41	100	141	64.4
복지리	94	130	224	8	11	19	8.5
비프스테이크	48	55	103	4	0	4	3.9
스파게티	32	35	67	6	7	13	19.4

요 약

부산지역의 외식실태 중 음식집과 음식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교 식품영양과 재학생의 친지 중에서 부산시내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진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남녀 56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은 성별과 연령별로 구분하였으며, 연령은 의식수준과 시대적 동질성 등을 감안하여 대학생 이하의 응답자는 학교별로 구분하고 성인들은 10살 단위로 구분하여 조사한 다음 생활환경과 소득수준에 따라 초등생, 중학생 및 고교생을 묶어서 학생층으로, 대학생과 20대를 묶어서 청년층으로, 30대 이상의 장년층을 묶어서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층과 청년층을 묶어서 젊은이로 하였다.

설문 내용은 음식집을 선호하거나 싫어하는 이유와 일반인이 자주 먹는 메뉴중 69종을 선택하여 먹어보지 않은 음식, 좋아하는 음식 및 싫어하는 음식의 종류와 그에 대한 이유 등을 알아봤으며, 각 설문에 대한 선택은 문항에 따라 2~3개씩 선택하게 하여 응답자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

1. 음식집을 좋아하는 주요한 요인은 “맛이 있어서”, “분위기가 좋아서”, “가격이 싸서” 순이었으며 싫어하는 이유는 “맛이 없어서”, “비위생적이어서”, “종업원이 불친절해서” 순이었다.
2. 응답자의 30%가 먹어보지 않은 메뉴의 종류는 남자가 6종인데 비해 여자는 9종이었으며, 초등생 15종, 중학생과 고교생이 13종(이상 학생층), 대학생이 6종, 20대가 4종(이상 청년층), 30대가 2종, 그리고 40대와 50대 이상(이상 장년층)이 3종으로 여자와 나이가 어릴수록 그 종류가 많았다.
3. 부산시민이 좋아하는 메뉴는 전체적으로 “생선회”, “피자”, “불고기” 순이었으며, 남자와 장년층은 전통음식을 여자와 젊은이(학생층과 청년층)는 패스트 푸드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전체적으로 싫어하는 메뉴는 “보신탕”, “곱창전골”, “꼬리곰탕” 순이었으며, 남자와 장년층은 패스트 푸드를 여자와 젊은이들은 보신탕을 더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음식을 선호하는 주요한 이유는 “맛이 있어서”, “그냥 좋아서”, “영양이 풍부해서” 순이었으며, 남자와 장년층은 “영양이 풍부해서”, 여자와 젊

은이들에서는 “외래음식이어서” 비율이 높았다.

6. 음식을 싫어하는 주요한 이유는 “맛이 없어서”, “혐오식품이어서”, “체질상 거부하여서” 순이었으며, 남자와 장년층은 “외래음식이어서”, 여자와 젊은층은 “혐오식품이어서” 비율이 높았다.

이상과 같은 음식집과 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한국외식산업총합센터 : 월간 식당, 1월호, p. 132~150(1998).
2. 월간 식당 편 : 식당의 경영전략, 청림출판, 서울, p. 112~116(1988).
3. 월간 식당 편 :接客 서비스 백과, 청림출판, 서울, p. 9~14(1988).
4. 박병렬, 임봉영 : 외식사업주방관리론, 대왕사, 서울, p. 24~25(1995).
5. 西村一郎 : 若者の飲食動向, 醸協, 86(2), 93~98(1991).
6. 신미경, 한성희 : 식품기호가 성인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익산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7(2), 181~198(1997).
7. 한국외식산업총합센터 : 월간 식당, 4월호, p. 26~35(1990).
8. 김두진 : 외식산업에서의 프랜차이즈 시스템 가맹점에 대한 소비자 의식 조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7(1), 36~44(1994).
9. 강남이, 조미숙 : 여대생과 그들 어머니의 외식산업에 대한 식생활 태도 조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4(1), 45~60(1991).
10. 남궁 석 : 서울지역 거주자의 외식행동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5(1), 75~86(1995).
11. 김두진 : 부산지역의 외식실태조사. 1.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의식성향, 한국식품영양학회지, 7(3), 239-249(1994).
12. 신애숙, 김경자 :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대학가 음식문화 실태조사,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5(3), 339~358(1995).
13. 나영아, 윤은숙 : 서양음식의 외식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식품영양학회지, 4(2), 187~198(1991).
14. 김경애, 조수향 : 패스트 푸드점을 이용하는 광주지역 중·고등학생의 의식에 관한 조사,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4(2), 33~38(1994).
15. 윤혜진, 위성언 : 대학생들의 패스트 푸드와 외식행동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7(4), 323~331(1994).
16. 김수영 : 알기 쉬운 데이터베이스 통계소프트웨어, 정보문화사, 서울(1993).

17. 山口静子 : 食品の嗜好と味, 日本食品工業學會誌, 41(3), 241~247(1994).
 18. 도서출판 청림각 : 월간 식당, 11월호, p. 41~46(1987).
 19. 青木宏 : 食品の嗜好, 日本食品工業學會誌, 41(1), 77~83(1994).
 20. 한국외식산업총합센타 : 월간 식당, 4월호, p. 108~117(1995).
 21. 박상배, 임봉영 : 외식사업개론, 대왕사, 서울, p. 142(1995).
 22. 한국외식산업총합센타 : 월간 식당, 5월호, p. 66~68(1995).
 23. 양한민 : 식당창업과 운영방안, 외식상업경영자과정(제1기) 워크숍 발표회 자료, p. 3~37(1992).
 24. 한국개발조사연구소 : 한국인의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 p. 25-123(1990).
 25. 임경인 : 식당경영원론, 대왕사, 서울, p. 51(1994)
-
- (1998년 2월 11일 접수)